

어린이 및 청소년의 라면류 섭취 현황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효선 · 송민경 · 광다영 · 윤혜현*
경희대학교 조리·서비스경영학과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Intake Patterns and Expenditures of Instant Noodles (*Ramyun*) by Children and Adolescents

Hyo Sun Jung, Min Kyung Song, Da Young Kwak, Hye Hyun Yoon*
Department of Culinary Servic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the whole intake patterns and realities of consumption of instant noodles on sal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Based on a total of 1021 subjects, data from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comparative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frequency, chi-square, t-test, and one-way ANOVA.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preference levels for instant noodles by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5.25, thereby showing a more than moderate preference. Middle school boy students' preference for instant noodles was the highest. The main reason for preferring instant noodles was taste and convenience. The main reason for disliking instant noodles was poor nutrition and likelihood of becoming fat. The intake of instant noodles was the highest between lunch and dinner with a frequency of once to twice per week. Content of soup powder given taking instant noodles was the largest in having putted all. The soup quantity of being left given taking instant noodles was possessed the majority in almost not eating soup. The main reason for not consuming soup was being full or concerns for health.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preference level for instant noodles and in intake patterns depending on the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Ramyun* (Instant Noodles), Intake Patterns, Children, Adolescent

1. 서론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식생활의 서구화와 국민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생활 양식의 변화는 식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의 음식 소비 형태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Kim 2010). 이러한 현대의 가속화된 산업화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와 독신자의 증가, 이와 함께 주 5일제의 도입에 따라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식사 해결 방법보다는 외식을 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구입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Kim 등 2005). 그러나 소비자들은 간편함이나 편의성에 의거하여 HMR(Home Meal Replacement) 식품을 선호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맛과 영양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Jang 등 2010). 결과적으로 국민 소득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의 고품질 식품

에 대한 기호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자연 지향적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서도 소비자는 무엇보다 건강식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농촌진흥청, 2003).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서, 냉장·냉동 시설의 발달은 기존의 건면 또는 유탕면 외에도 생면, 숙면, 개량 숙면 등 다양한 제품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였고, 라면 업계의 시장 규모도 2007년 1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1조 9천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정 2009), 라면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다소비 식품 중 전체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1인 1일 평균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여도 라면이 13위를 차지하면서 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으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그러나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라면류(Jang 등 1988, Kim & Lee 1989; Jang 등 1989, Hyun 등 1990; Lee &

*Corresponding author: Hye Hyun Yoon, Dept. of Culinary Servic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9403 Fax: 82-2-964-2537 E-mail: hhyun@khu.ac.kr

Lee 2003; Lee 등 2009)와 인스턴트 면류로써 라면류와 우동류(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라면류와 국수류(Chung 등 2010) 등의 섭취 실태에 초점을 맞춘 탐색적 연구가 한정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라면류 섭취 현황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로는, 서울 지역 거주민의 라면 소비 실태 조사(Kim & Lee 1989)와 라면의 소비 실태를 초등학생(Jang 등 1988), 중학생(Jang 등 1989), 고등학생(Hyun 등 1990)으로 구분하여 수행된 연구가 일부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라면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000년 이후에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라면류에 대한 전반적인 섭취 현황을 고찰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면류 식품은 성인 뿐 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즐겨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라면류 섭취 실태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경영자적 관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라면류에 대한 선호 정도 및 전반적인 섭취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해 라면류 제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와 청소년(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국 6대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1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1138부가 수거되었고, 총 1021부(78.53%)가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예비 조사는 2011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등 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설문지를 보완하여, 본 조사는 2011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수행되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라면류 섭취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위해 기존의 문헌(Lee & Lee 2003; Choi & Cha 2008; Lee 등 2009; Chung 등 2010; 권 등 2011)을 참고하여 재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설문지의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은 성별, 거주 지역, 학년, 가족 수, 한 달 용돈, 부모님 학력(아빠, 엄마 구분), 부모님의 직업 유무 등 8문항을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라면류 섭취 현황으로써 라면류 선호

정도는 7점 리커드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선호 라면류 종류(분류별 3문항), 라면류 선호 이유, 라면류 기피 이유, 라면류 섭취 빈도, 라면류 섭취 시간대, 라면류 섭취량, 라면류 섭취 시 동반인, 라면류를 주로 구매하는 사람, 라면 섭취 시 스프 첨가량, 라면 섭취 시 라면 국물 남기는 양, 라면 국물을 기피하는 이유 등 14문항(명목 척도, 서열 척도)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의 통계 분석

총 1021부의 분석 자료는 SPSS(V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포 차이는 카이스퀘어를 통해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라면류의 선호 정도에 대한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test를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49.7%, 여학생 50.3%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 21.3%, 인천 11.4%, 대전 10.7%, 광주 11.5%, 대구 11.0%, 울산 11.9%, 부산 11.4%, 제주 11.0% 등으로 나타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가족 규모는 3~4명이 82.5%로 가장 많았으며, 2명 11.9%, 5명 이상 5.6%이었고, 한 달 용돈으로는 3만원 미만이 66.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학력으로 아빠와 엄마 모두 대졸 이상이 54.8%, 49.9%로 가장 많았으며, 두 분 모두 현재 일하고 계시다는 응답자가 60.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특성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분포가 거의 비슷하였지만, 중학생은 남학생이 많았고, 고등학생은 여학생이 많아서 유의한($p<0.001$) 분포 차이를 보였다. 거주 지역 간에도 학년에 따른 유의한($p<0.001$) 분포 차이가 있었으며, 한 달 용돈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유의한($p<0.01$) 분포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학력에 있어서는 저학년일수록 아빠와 엄마의 학력이 모두 유의하게($p<0.001$)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모의 직업 유무에 있어서는 고등학생 응답자의 부모 모두 일하신다는 응답 분포가 가장 높아서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다.

2. 라면류 선호 정도 및 이유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라면류 선호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라면류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8.6%이었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N=1021)

| Characteristic | Grade (N, %) | | | Total* | |
|--------------------------------------|--------------------------------|-------------------------------|-----------------------------|------------|-----------|
| | Elementary schoolchild (N=309) | Middle school student (N=401) | High school student (N=311) | | |
| Gender | Male | 156(50.5) | 231(57.6) | 120(38.6%) | 507(49.7) |
| | Female | 153(49.5) | 170(42.4) | 191(62.4%) | 514(50.3) |
| Chi-Square=25.417, df=2, p=0.000*** | | | | | |
| Region | Seoul | 48(15.5) | 118(29.4) | 51(16.4) | 217(21.3) |
| | Inchon | 28(9.1) | 36(9.0) | 52(16.7) | 116(11.4) |
| | Daejeon | 38(12.3) | 45(11.2) | 26(8.4) | 109(10.7) |
| | Gwangju | 27(8.7) | 41(10.2) | 49(15.8) | 117(11.5) |
| | Daegu | 53(17.2) | 37(9.2) | 22(7.1) | 112(11.0) |
| | Ulsan | 29(9.4) | 43(10.7) | 50(16.1) | 122(11.9) |
| | Pusan | 54(17.5) | 26(6.5) | 36(11.6) | 116(11.4) |
| | Jeju | 32(10.4) | 55(13.7) | 25(8.0) | 112(11.0) |
| Chi-Square=88.784, df=14, p=0.000*** | | | | | |
| Family size (person) | 2 | 32(10.6) | 51(12.9) | 36(11.8) | 119(11.9) |
| | 3~4 | 252(83.2) | 326(82.5) | 249(81.9) | 827(82.5) |
| | 5~ | 19(6.3) | 18(4.6) | 19(6.2) | 56(5.6) |
| Chi-Square=2.070, df=4, p=0.723 | | | | | |
| Monthly pocket money (₩1,000) | ~10 | 193(65.0) | 128(32.7) | 46(14.8) | 367(36.7) |
| | 11~30 | 72(24.2) | 155(39.5) | 71(22.9) | 298(29.8) |
| | 31~50 | 21(7.1) | 58(14.8) | 84(27.1) | 163(16.3) |
| | 51~100 | 8(2.7) | 33(8.4) | 79(25.5) | 120(12.0) |
| | 101~ | 3(1.0) | 18(4.6) | 30(9.7) | 51(5.1) |
| Chi-Square=260.60, df=8, p=0.000*** | | | | | |
| Fa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 59(22.2) | 93(23.6) | 167(57.0) | 319(33.5) |
| | College | 40(15.0) | 45(12.7) | 22(7.5) | 112(11.8) |
| | University~ | 167(62.8) | 251(63.7) | 104(35.5) | 522(54.8) |
| Chi-Square=106.00, df=4, p=0.000*** | | | | | |
|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 68(26.0) | 107(27.7) | 194(66.9) | 369(39.3) |
| | College | 42(16.0) | 50(13.0) | 9(3.1) | 101(10.8) |
| | University~ | 152(58.0) | 229(59.3) | 87(30.0) | 468(49.9) |
| Chi-Square=138.80, df=4, p=0.000*** | | | | | |
| Appearance of parents' job | Father's working | 113(36.7) | 158(39.4) | 76(24.5) | 347(34.1) |
| | Mother's working | 7(2.3) | 16(4.0) | 25(8.1) | 48(4.7) |
| | Both parents' working | 188(61.0) | 222(55.4) | 207(66.8) | 617(60.5) |
| | Both parents' being jobless | 0 | 5(1.2) | 2(0.6) | 7(0.7) |
| Chi-Square=29.354, df=6, p=0.000*** | | | | | |

*There is an item whose total sum is not 1021 due to the missing value; ***p<0.001

으며, 보통이다 23.8%, 싫어한다 5.5% 등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라면류를 좋아하는(5.25±1.37)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2005)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인스턴트 면류(라면류, 우동류) 29종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섭취 실태를 고찰한 결과, 74%의 초등생이 면류를 선호한다고 한 것과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라면류 선호 정도를 고찰한 결과<Table 3>,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5.36±1.34)이 여학생(5.14±1.40)보다 라면류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p<0.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Lee & Lee(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라면의 섭취 실태 및 라면에 대한 영양 관련 식품의 가치 인식도를 고찰한 결과,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라면 선호도가 높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Lee 등(2009)도 아동 및 청소년의 라면 섭취에 따른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라면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였으며, Chung 등(2010)도 한국인의 라면 및 국수 섭취 실태에 대해 고찰한 결과, 라면 및 국수의 소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Table 2> Preference level for instant noodles

| Like extremely | Like moderately | Like slightly | Neither like nor dislike | Dislike slightly | Dislike moderately | Dislike extremely |
|------------------|-----------------|---------------|--------------------------|------------------|--------------------|-------------------|
| 275(26.9%) | 143(14.0%) | 283(27.7%) | 243(23.8%) | 48(4.7%) | 21(2.1%) | 8(0.8%) |
| 5.25±1.37 (M±SD) | | | | | | |

<Table 3> Analysis of difference in preference level for instant noodles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 | Preference level | Mean±SD ^a | t-value (F-value) | p-value |
|----------------------|------------------------|-------------------------|---------------------|---------|
| Gender | Male | 5.36±1.34 | (t-value) 2.527 | .012* |
| | Female | 5.14±1.40 | | |
| Grade | Elementary schoolchild | 4.95±1.41 ^b | (F-value) 19.123 | .000*** |
| | Middle school student | 5.56±1.33 ^a | | |
| | High school student | 5.14±1.30 ^b | | |
| Region | Seoul | 5.50±1.32 ^a | (F-value) 3.552 | .001** |
| | Inchon | 5.54±1.38 ^a | | |
| | Daejeon | 5.29±1.36 ^{ab} | | |
| | Gwangju | 5.00±1.46 ^b | | |
| | Daegu | 5.10±1.38 ^b | | |
| | Ulsan | 5.07±1.23 ^b | | |
| | Pusan | 5.30±1.34 ^{ab} | | |
| Jeju | 4.98±1.43 ^b | | | |
| Family size (person) | ~2 | 5.45±1.38 ^a | (F-value) 3.423 | .033* |
| | 3~4 | 5.25±1.37 ^a | | |
| | 5~ | 4.87±1.20 ^b | | |

^aSD=Standard Deviation; *p<0.05, **p<0.01, ***p<0.001; ^{a-b}Duncan's multiple test

나타났다고 한 것과 유사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생 (5.56±1.33), 고등학생(5.14±1.30), 초등학생(4.95±1.41) 등의 순으로 라면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5.50±1.32)과 인천(5.54±1.38)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응답자의 선호 정도가 가장 높았으나, 반면 제주(4.98±.43) 지역 거주 응답자의 선호 정도가 가장 낮아서 거주 지역에 따라라도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다. 가족 수에 있어서는 2명 이하(5.45±1.38)와 3~4명(5.25±1.37)가 5명 이하(4.87±1.20)의 응답자보다 선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p<0.05) 차이를 나타냈다.

선호하는 라면류의 종류는 <Table 4>와 같다. 선호 라면류는 봉지라면 67.9%, 컵라면 32.1%이었으며, 국물 타입 81.1%, 비빔 타입 18.9%로 나타나, 국물 타입의 봉지 라면을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선호도를 고찰한 결과, 일반 라면 68.5%, 우동·국수 14.2%, 짜장 라면 13.4%, 냉면류 3.9%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라면류가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국물 타입의 일반 봉지라면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류 선호 이유와 기피 이유는 <Table 5>와 같다. 라면류 선호 이유로는 맛 때문이라는 이유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성 25.7%, 면류를 좋아해서 15.1%, 저렴한 가격

8.6%, 다른 대안이 없어서 7.0%, 친구들과 함께 먹어서 1.6%, 습관적으로 1.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Lee & Lee(2003)의 연구에서 라면류를 선호하는 이유가 맛과 간편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학년에 따른 선호 이유에서도 유의한 분포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맛이나 면류를 좋아해서 선호한다고 한 응답자의 분포가 많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학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편의성이나 다른 대안이 없어서 라면을 먹었다고 한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여, 유의한(p<0.001) 분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피 이유로는 영양에 좋지 않아서가 32.0%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살절까봐 27.5%, 맛이 없어서 14.8%, 부모님이 못 먹게 해서 10.2%, 소화 불량/알레르기 3.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에 따른 기피 이유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과 비교하여 부모님이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비교하여 살절까봐 기피한다고 한 응답자의 분포가 많아서 유의한(p<0.05) 분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라면류 섭취 현황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전반적인 라면류 섭취 현황은 섭취 빈도, 섭취 시간대, 섭취량, 섭취 동반인, 라면류 구입인, 라면

<Table 4> Kinds in instant noodles of being preferred

| Kinds in instant noodles | Grade (N, %) | | | Total N(%) |
|----------------------------------|---------------------------------|-------------------------------|-----------------------------|------------|
| | Elementary schoolchild (N=309) | Middle school student (N=401) | High school student (N=311) | |
| Envelope type | 199(64.4) | 268(66.8) | 226(72.7) | 693(67.9) |
| Bowl type | 110(35.6) | 133(33.2) | 85(27.3) | 328(32.1) |
| Chi-Square=5.187, df=2, p=0.075 | | | | |
| Soup type | 241(78.0) | 339(84.5) | 248(79.7) | 828(81.1) |
| Bibim type | 68(22.0) | 62(15.5) | 63(20.3) | 193(18.9) |
| Classification | Chi-Square=5.412, df=2, p=0.067 | | | |
| General type | 201(65.0) | 288(71.8) | 210(67.5) | 699(68.5) |
| Jjajang type | 52(16.8) | 51(12.7) | 34(10.9) | 137(13.4) |
| Udong type | 40(12.9) | 53(13.2) | 52(16.7) | 145(14.2) |
| Cold type | 16(5.2) | 9(2.2) | 15(4.8) | 40(3.9) |
| Chi-Square=12.257, df=6, p=0.056 | | | | |

<Table 5> A reason for preferring and avoiding instant noodles

| Reason for preferring and avoiding | Grade (N, %) | | | Total N(%) | |
|------------------------------------|---|-------------------------------|-----------------------------|------------|-----------|
| | Elementary schoolchild (N=309) | Middle school student (N=401) | High school student (N=311) | | |
| Reason for preferring | ① Cheap price | 18(6.3) | 49(13.1) | 15(5.2) | 82(8.6) |
| | ② Convenience (time saving) | 49(17.2) | 93(24.8) | 102(35.1) | 244(25.7) |
| | ③ Due to taste | 117(41.1) | 139(37.1) | 99(34.0) | 355(37.3) |
| | ④ Because of having no alternative plan | 16(5.6) | 13(3.5) | 38(13.1) | 67(7.0) |
| | ⑤ Due to eating together with friends | 7(2.5) | 5(1.3) | 3(1.0) | 15(1.6) |
| | ⑦ Habitually | 8(2.8) | 3(0.8) | 2(0.7) | 13(1.4) |
| | ⑧ Due to liking noodles | 53(18.6) | 64(17.1) | 27(9.3) | 144(15.1) |
| | ⑨ Others | 17(6.0) | 9(2.4) | 5(1.7) | 31(3.3) |
| | Chi-Square=84.399, df=14, p=0.000*** | | | | |
| Reason for avoiding | ① Due to having no good taste | 14(14.1) | 12(15.0) | 10(15.4) | 36(14.8) |
| | ② Not good for health | 35(35.4) | 24(30.0) | 19(29.2) | 78(32.0) |
| | ③ Because parents prevent from eating | 17(17.2) | 8(10.0) | 0(0.0) | 25(10.2) |
| | ④ Due to likely getting fat | 20(20.2) | 22(27.5) | 25(38.5) | 67(27.5) |
| | ⑤ Indigestion/allergy | 4(4.0) | 1(1.2) | 3(4.6) | 8(3.3) |
| | ⑥ Others | 9(9.1) | 13(16.2) | 8(12.3) | 30(12.3) |
| Chi-Square=20.092, df=10, p=0.028* | | | | | |

*p<0.05, ***p<0.001

스프 첨가량, 라면 국물 섭취량, 라면 국물 기피 이유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라면류 섭취 빈도는 2주일에 1번(28.1%), 1주일에 1번(23.1%), 1주일에 2번 이상(23.0%) 등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Lee & Lee(2003)의 연구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주 1~2회 라면을 섭취한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중학생이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1주일에 1회 이상 라면류를 먹는다고 응답하여 유의한(p<0.001) 분포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류 섭취 시간대는 점심과 저녁 사이가 34.2%로 가장 많았고, 저녁 25.0%, 점심 23.3%, 아침 6.5%, 아침과 점심 사이

5.7%, 저녁 후 간식 5.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끼니 대응으로 라면류를 섭취하는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Chung 등(2010)의 연구에서, 라면과 국수 모두 점심에 섭취 빈도가 높았다고 한 것과 일부 유사한 결과였다. 학년에 따른 섭취 시간대의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점심에 라면류를 섭취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저녁에 라면류를 섭취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아서 유의한(p<0.001) 분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소비자보호원(2005)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은 주로 간식과 점심에 면류를 섭취한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Table 6> Intake patterns for instant noodles

| Intake patterns | Grade (N, %) | | | Total N(%) | |
|--|---|-------------------------------|-------------------------------|------------|-----------|
| | Elementary schoolchild (N=309) | Middle school student (N=401) | Middle school student (N=311) | | |
| Intake frequency | Over once a day | 13(4.3) | 20(5.1) | 2(0.7) | 35(3.5) |
| | Over three times per two days | 12(4.0) | 16(4.1) | 13(4.3) | 41(4.1) |
| | Over twice a week | 61(20.3) | 102(25.8) | 67(22.0) | 230(23.0) |
| | Once a week | 68(22.6) | 103(26.1) | 60(19.7) | 231(23.1) |
| | Once per two weeks | 82(27.2) | 203(26.1) | 96(31.5) | 281(28.1) |
| | Once a month | 65(21.6) | 51(12.9) | 67(22.0) | 183(18.3) |
| Chi-Square=28.217, df=10, p=0.000*** | | | | | |
| Intake time zone | Breakfast | 23(7.5) | 30(7.5) | 13(4.2) | 66(6.5) |
| | Between breakfast and lunch | 23(7.5) | 25(6.2) | 10(3.2) | 58(5.7) |
| | Lunch | 94(30.6) | 78(19.5) | 65(21.0) | 237(23.3) |
| | Between lunch and dinner | 94(30.6) | 167(41.8) | 86(27.8) | 347(34.2) |
| | Dinner | 66(21.5) | 87(21.8) | 101(32.7) | 254(25.0) |
| | After dinner | 7(2.3) | 13(3.2) | 34(11.0) | 54(5.3) |
| Chi-Square=68.346, df=10, p=0.000*** | | | | | |
| Intake amount (level quantity) (ea) | 2~ | 6(2.0) | 18(4.6) | 16(5.5) | 40(4.1) |
| | 1.5 | 12(4.0) | 51(13.1) | 36(12.3) | 99(10.1) |
| | 1 | 252(83.4) | 264(68.0) | 174(59.6) | 690(70.3) |
| | 0.5 | 32(10.6) | 55(14.2) | 66(22.6) | 153(15.6) |
| Chi-Square=48.223, df=6, p=0.000*** | | | | | |
| Companion given taking instant noodles | Alone | 67(21.7) | 164(41.1) | 133(43.2) | 364(35.8) |
| | Friend | 28(9.1) | 62(15.5) | 83(26.9) | 173(17.0) |
| | Family | 205(66.3) | 169(42.4) | 90(29.2) | 464(45.7) |
| | Others | 9(2.9) | 4(1.0) | 2(0.6) | 15(1.5) |
| Chi-Square=109.30, df=6, p=0.000*** | | | | | |
| Person of buying instant noodles | Myself | 101(33.3) | 250(62.8) | 266(86.1) | 617(61.1) |
| | Parents | 185(61.1) | 129(32.4) | 33(10.7) | 347(34.4) |
| | Brother or Sister | 16(5.3) | 19(4.8) | 7(2.3) | 42(4.2) |
| | Friend | 1(0.3) | 0(0.0) | 3(1.0) | 1(0.4) |
| Chi-Square=191.90, df=6, p=0.000*** | | | | | |
| Instant-noodle soup additive content | Putting all | 176(58.3) | 177(72.0) | 174(92.2) | 749(74.1) |
| | Putting only 2/3 | 57(18.9) | 71(17.8) | 19(6.1) | 147(14.5) |
| | Putting only 1/2 | 45(14.9) | 26(6.5) | 2(0.6) | 73(7.2) |
| | Putting only 1/3 | 14(4.6) | 11(2.8) | 0(0.0) | 25(2.5) |
| | Putting only 1/4 | 10(3.3) | 4(1.0) | 3(1.0) | 17(1.7) |
| Chi-Square=109.58, df=8, p=0.000*** | | | | | |
| Instant-noodle soup quantity of being left | Eating all | 70(23.3) | 91(23.0) | 21(10.1) | 192(19.1) |
| | Eating only 1/2 | 59(19.6) | 62(15.7) | 63(20.5) | 184(18.3) |
| | Eating only 1/3 | 47(15.6) | 78(19.7) | 69(22.5) | 194(19.3) |
| | Eating only 1/4 | 25(8.3) | 54(13.6) | 60(19.5) | 139(13.8) |
| | Almost not eating | 100(33.2) | 111(28.0) | 84(27.4) | 295(29.4) |
| Chi-Square=41.27, df=8, p=0.000*** | | | | | |
| A reason for avoiding instant-noodle soup | Because of being full | 68(26.7) | 103(32.1) | 77(31.3) | 248(30.2) |
| | Because of being harmful to health | 60(23.5) | 85(26.5) | 35(14.2) | 180(21.9) |
| | Because of liking solid ingredients of soup | 24(9.4) | 17(5.3) | 20(8.1) | 61(7.4) |
| | Because of being too salty | 55(21.6) | 46(14.3) | 44(17.9) | 145(17.6) |
| | Because of likely getting fat | 29(11.4) | 41(12.8) | 48(19.5) | 118(14.4) |
| | Others | 19(7.5) | 29(9.0) | 22(8.9) | 70(8.5) |
| Chi-Square=26.43, df=10, p=0.003** | | | | | |

p<0.01, *p<0.001

라면류 섭취량은 1회 1개가 70.3%로 가장 많았으며, 0.5개 15.6%, 1.5개 10.1%, 2개 이상 4.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섭취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p<0.001$) 분포 차이를 보였다. 섭취 동반인으로는 가족 45.7%, 혼자 35.8%, 친구 17.0%, 기타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먹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혼자 먹거나 친구와 함께 먹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유의한($p<0.001$) 분포 차이를 보였다. 라면류를 구입하는 사람으로는 내가 직접 구입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 34.4%, 형제·자매 4.2%, 친구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라면류를 직접 구입하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다. 라면 섭취 시 라면 스프 첨가량으로는 모두 넣는다가 74.1%로 가장 많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라면 스프 첨가량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p<0.001$) 분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면 섭취 시 남기는 국물 양으로는 거의 안 먹는다가 29.4%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1/3정도 남긴다 19.3%, 모두 먹는다 19.1% 등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로, 초등학생은 반 이상 먹는다는 응답자가 42.9%였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1/4이상 남기거나, 거의 안 먹는다고 한 응답자가 46.9%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p<0.001$) 차이를 나타났다. 라면 국물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배불러서 30.2%, 건강에 해로우니까 21.9%, 너무 짜서 17.6%, 살찔까봐 14.4% 등의 순이었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배가 불러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살찔까봐 먹지 않는다가 다수를 차지하여 유의한($p<0.01$) 분포 차이를 보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판 라면류의 전반적인 섭취 현황 및 소비 실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및 청소년의 라면류 선호 정도는 5.25 ± 1.37 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라면류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68.6%로써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라면류 선호 정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선호정도가 높았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라면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응답자의 선호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 규모가 작을수록 라면류의 선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호라는 라면류로는 전통적인 국물 타입의 일반 봉지 라면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라면류 선호 이유로는 맛과 편의성 때문이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주로 맛이나 면류를 좋아해서 라면류를 선호한다고 하

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편의성 때문에 라면을 선호한다고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기피 이유로는 영양에 좋지 않아서, 살찔까봐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과 비교하여 부모님이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비교하여 살찔까봐 기피한다고 한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둘째, 라면류 섭취 현황으로, 섭취 빈도는 1주일에 1~2번 이상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1주일에 1회 이상 라면류를 섭취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학생의 라면 섭취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류 섭취 시간대는 점심과 저녁 사이가 34.2%로 가장 많았으나 아침, 점심, 저녁 등 끼니 대응으로 라면류를 섭취한다고 한 응답자가 54.8%로 나타나 우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여전히 끼니 대응으로 라면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면류 섭취량은 1개가 70.3%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섭취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 동반인으로는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이 45.7%로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먹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혼자 먹거나 친구와 함께 먹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라면류를 구입하는 사람으로는 내가 직접 구입한다가 61.1%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직접 구입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라면 섭취 시 라면 스프 첨가량으로는 모두 넣는다가 가장 많았고, 남기는 국물양은 거의 먹지 않는다가 가장 많았으며, 라면 국물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배불러서와 건강에 해로우니까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 및 청소년은 라면류를 매우 선호하고 있었으며, 선호 이유로는 맛과 편의성 때문이었고, 1주일에 1~2번 라면류를 섭취하였는데,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에 끼니 대응으로써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현재 다양한 시판 라면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국물 타입의 봉지라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은 라면류에 대해 맛과 편리함 측면에서는 매우 선호하지만, 영양적인 측면과 높은 칼로리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기피하는 경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전히 한 끼 식사 대응으로 라면류를 섭취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식품 기업 경영자적 관점에서 라면류 제품의 영양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간편식 보다 건강식이라는 개념으로써의 라면류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영양 및 건강적인 측면에 대한 부담으로 라면류를 기피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므로, 염도를 낮춘 나트륨 저감화를 도모하거나 포장이나 용량 등의 조절을 통한 칼로리 조정 방안 등 제품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한계는 표본 추출에 있어서 서울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7대 광역도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편의표본추출법의 단점으로 인해 여전히 대표성의 문제가 의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전체 의견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공 식품으로 대상으로 고찰된 측정 문항으로 라면류의 전반적인 섭취 현황을 규명하였으므로, 라면류의 특징적인 소비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로는 다소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1년 율촌재단의 재원을 지원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of the Nongshim Co. LTD.

■ 참고문헌

권희민, 진현정, 박기환. 2011. 우리밀 라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분석 농촌경제, 34(1), pp 19-37
 농촌진흥청. 2003. 다양한 소비육구 충족을 위한 고부가가치 면류 개발, pp 1-28
 정진희. 2009. 라면시장 동향, 식품세계 2009년 11월호, p 37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어린이의 인스턴트 면류 섭취실태 및 나트륨 함량 조사, pp 1-25
 Choi NM, Cha JA. 2008. An investigation on the eating status and expenditures of the traditional fermented foods for the housewives on Jeonbuk province.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4):71-81
 Chung JE, Lee KW, Cho MS. 2010. Effect of Ramyen and noodles intake in diet & health status of Kore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25(2):109-116
 Hyun YH, Kim MH, Jang MS. 1990. Consumption pattern of *Ramyon* by high school students: Kangwondo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and Cookery Science,

6(1):61-66
 Jang MS, Hwang JH, Hyun YH. 1988. Consumption pattern of *Ramyon* by elementary school pupils: Kangwondo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and Cookery Science, 4(2):81-86
 Jang MS, Hyun YH, Lee BN. 1989. Consumption pattern of *Ramyon* by middle school students: Kangwondo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and Cookery Science, 5(2):91-97
 Jang YJ, Kim WG, Yang IS (2011) Mature consumers' patronage motives and the importance of attributes regarding HMR based on the food-related lifestyles of the upper middl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0(1):55-63
 Kim JY, Song HJ, Park SS. 2005. Segmentation of the home meal replacement (HMR) market by lifestyle: The case of S department store in Kang-nam, Seoul.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8(2):137-154
 Kim KH. 2009. Food habits, eating behaviors and food frequency by gender and among Seoul and other regions in upper-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5(2):180-190
 Kim SG, Lee AR. 1989. Survey on consumption pattern of *Ramyon* in Seoul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4(4):395-404
 Lee JS, Kim JS., Hong KH., Jang YA., Park SH., Sohn YA., Chung HR. 2009. A comparison of food and nutrient Intakes between Instant noodle consumers and non-consumers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Nutrition, 42(8):723-731
 Lee JW, Lee YH. 2003. Frequency of instant noodle (*Ramyeon*) intake and food value recognition, and their relationship to blood lipid levels of male adolescents in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8(4):485-49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Report. 220-226

2011년 8월 9일 신규논문접수, 10월 24일 수정논문접수, 10월 25일 채택